

#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

- 브리퍼 :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-

## < 1. 인사말씀 >

□ 안녕하십니까.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.

## < 2. 정부 측 목표 및 당부사항 >

□ 오늘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 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바와,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.

□ 우리 정부는,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,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, 우리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런데, 오염수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,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두 가지 목표는 어느 정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

○ 이에,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상세히 파악해 국민들에게 전해드림으로써, 국민들께서 정확한 인식하에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판단 근거를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- 그리고,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, 당연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들입니다.
- 오염수와 관련해, 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거나, 지금까지 정보 전달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,
-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최대한 자세히 준비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노력 중입니다.
- 다만,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국민들에게 과학적 사실을 전달해 드려도,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, 야당과 언론에서 발표 또는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### < 3. 식약처 보고서 공개 관련 사실관계 확인 >

- 다음으로, 어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송기호 부단장께서 식약처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브리핑하신 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송기호 부단장께서는,
  - ① 식약처가 '14~'15년에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방사능 위험성 현지조사를 진행했고,
  - ② 이러한 활동에 따라 '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 관리방안 연구'라는 보고서가 완성되었으며,
  - ③ 식약처는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, 이와 달리 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.
  
- 먼저, 송기호 부단장께서 주장하신 내용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들이 섞여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.
  
- 한 가지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 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입니다.
  - 위원회는 '14년 9월에 구성되어, 일본 현지조사 등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이 우리 측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함에 따라 활동이 잠정중단되었습니다.
  - 송기호 부단장께서 이 활동에 대해 말씀하셨던 거라면,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.
  -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, 이 활동은 WTO 제소 이후 잠정중단되어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, '15년 송기호 변호사가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부존재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.

- 다른 한 가지는 일본 측의 WTO 제소 이후의 활동으로,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한 위해성 평가 활동에 대한 것이며,
  - 송기호 부단장께서 식약처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  - 다만, 송기호 부단장께서 이 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을 때, 식약처가 이를 비공개하면서 '우리 측이 WTO 분쟁이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'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  - 이는 WTO 분쟁 중인 상황임을 염두에 둔 조치였으며,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선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결론적으로,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,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- 또한, 송기호 부단장께서는 이 주장을 이어나가는 중에 오염수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계신데, 누누이 말씀드렸듯이,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.

-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,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.

#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-

## 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.

## 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6월 30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어제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17건 (금년 누적, 4,722건)이었습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○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오징어 4건, 뱀장어 2건, 가자미 2건, 꼴뚜기 1건, 방어 1건 등이었습니다.

□ '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' 운영 결과입니다.

○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양식장의 조피볼락 (우럭) 1건을 조사한 결과, 적합이었습니다.

○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27건을 신청 받아 상위 품목 10여개를 대상으로 88건을 선정하였고, 79건을 완료하였으며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- 현재 9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, 알려드리겠습니다.
-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  - 6월 28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2건(금년 누적, 2,849건)이고,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
-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.
  - 지난 브리핑 이후,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
  -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, 이바라키현,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1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### < 3. 개별 설명 사항 >

- 다음으로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천일염 방출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.
  -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400톤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, 어제인 6월 29일에는 50여톤이 공급되었습니다.

- 7월 11일까지 잔여 물량 350여톤도 차질없이 공급하여, 4개 마트 전국 180여개 지점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.
- 전통시장 판매처도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금일 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일부 언론에서는 29일 어제 하루동안 400톤이 방출되어 5시간만에 완판되었다는 자막기사가 있었습디만,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.
  - 어제 하루 방출 물량은 51톤이었습니다. 아직 정부 비축 물량 여분이 350톤 남아 있습니다.
- 정부가 지난 6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천일염 합동점검반 활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 - 해수부와 해양경찰청, 관할 지자체(전남도·신안군)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은 어제까지 5일 동안, 전남 지역 천일염 생산·유통 업체 6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.
  - 점검 결과, 특정 업체에서 평년 동기 거래실적과 비교해 물량을 과도하게 보관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,
  - 보관량이 다소 많은 경우에도 출하 일정을 일일이 점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.

○ 다만, 원산지 표시와 품질 표시 등 위반 사례를 5건  
확인하여 제도 후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.

\* ① 원산지표시 방식 위반, ② 품질검사 미표시, ③ 이력정보와 품질표시  
불일치, ④ 미신고 소분가공, ⑤ 재고물량 판매 지연

○ 이번에 점검한 생산자와 1차 유통업체 이외에도,  
2차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,  
정부 합동점검반 활동을 다음 주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.

□ 끝으로 바닷물이 증발하여 천일염 결정이 형성되는  
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신  
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○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, 천일염을  
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되므로, 천일염에는  
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
○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,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부터  
지금부터 총 316건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,

○ 단 한 차례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말씀도  
다시 드립니다.

○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  
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 
당부드립니다.

□ 이상입니다.